



# 당진시의회 소식

확실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제20호 | 2019년 9월 30일(월)

※ 당진시의회 소식은 시민여러분께 당진시의회 의정활동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됩니다.

■ 발행인 : 당진시의회 의장 ■ 발행처 : 당진시의회 의회사무국 ■ 주소 : 31773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 전화 : (041)350-4831 ■ 팩스 : (041)355-1901



## 당진시의회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 분노, 무역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7월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1일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이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조치임을 규탄하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의 세 가지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 면제국가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이번 수출규제 조치 발표는 우리나라를 겨냥해 민간기업 거래를 제한하고 세계 경제 발전까지 위협하는 조치”라면서 “이 소식을 듣고 당진시의회와 17만 당진시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은 수출규제가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강변하면서도 스스로 양국 간 민감한 역사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는 피해가면서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이용하여 정권 연장을 위한 일본 지도부의 정치적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이라면서 “이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를 한 것임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 략 물 자 의 수 출 과 관 련 된 바세나르체제나 GATT 협약에 기초한 WTO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허가 규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는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아산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충청남도의 경우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수출비중이 59.2%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고용

인력의 감소 등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일본은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 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17만 당진시민들의 뜻을 모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국제법의 엄정히 준수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하나, 건전한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하나, 일본은 내부정치를 이유로 단행한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양국 간 무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라!”

# 대법원서“정의로운 판결 촉구”1인 시위



## 8월 ~ 9월 ‘당진땅 찾기’ 시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실시 충남 시·군의회 의장들도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 위해 대법원 1인 시위 나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13명 의원들은 8월 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항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 촉구를 위한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기존 1인 시위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왔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대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는 대법원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시작했으며 당진시의회도 8월 5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9월 16일사이 시의원 13명 전원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시의회 처음으로 시위를 시작한 김기재 의장은 출근시간과 점심시간을 겨냥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관계자들과 서울시민들에게 억울하게 평택에 빼앗긴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가 당진땅임을 1인 시위를 통해 강력히 호소했다.

김기재 의장은“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억울하게 우리 땅을 빼앗겼으며 이를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당진땅을 찾기 위해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당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발맞춰, 한마음 한뜻으로 앞장서서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제3대 당진시의회는 작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실시했으며 김기재 의장은 지난

5월 충남 아산시의회에서 열린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공동 발의하는 등 당진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의회의 의장들도 8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충남으로 귀속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까지 릴레이 형식으로 1인 피켓시위를 실시, 대법관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에게 충남 당진시 관할 당위성을 호소했다.

## 제64회·제65회 임시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7월 15일과 9월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64회, 제65회 임시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번 제64회 임시회는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19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 사안을, 또한 제65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총 19건의 조례안, 동의안, 계획안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제64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사단법인 당진시 개발위원회 및 사단법인 당진지역사회연구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제65회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 당진시의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 방문



## 당진시의회 - 지속적인 오염물질 저감대책 마련 및 지역 상생 협력 강조 현대제철 - 비산먼지 저감 의지 밝혀, 당진농산물 식재료 100% 사용 약속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9월 4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및 임·직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에 대한 보고를 갖고, 현대제철과 당진시간의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원들은 현대제철 방문에서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100% 사용 ▲현대제철 본사 이전 ▲지역사회 복지·상생 확대 ▲지역인력채용 확대 ▲직원 실거주자 주민등록 이전 ▲병원 및 학교 신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해 기여해 줄 것을 당진시민을 대변해서 적극 촉구했다.

또한 현대제철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저감대책 마련과 그동안 당진시민들의 피해에 따른 신뢰관계 회복 방안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김기재 의장은 “지금시점에서 현대제철에 대한 당진시민들의 불신이 깊기 때문에 향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비산먼지 저감 대책안 발표와 향후 상시적인 환경감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 관내 소아 전문 응급 병원 건립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면서 “당진시민들과 현대제철 근로자 등을 위한 지역 상생 발전 측면에서 소아 전문 응급 병원 건립에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아 전문 응급 병원과 연계한 근로자 전문 병원 건립에 대해 필요성을 제시 했으며 이에 대한 당진 관내 기업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사내직영 구내식당에 사용되는 농산물 및 식재료를

전량 당진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것이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으며 “그룹과 상의하여 지역인재 채용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당진시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0,000톤 이하로 저감하여 배출량을 10위 밖으로 줄이겠다”면서 환경감시와 관련해서는 “민·관·기업 환경감시 기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기적인 점검과 상시채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소아 전문 응급 병원 건립에 관련해서는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현대제철이 고로 브리더(개방장치) 가동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진시민들과 환경단체의 불신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지역 상생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 개원 1주년 맞아 배식봉사로 시민 성원‘보답’



## 시민의 소명담아 새출발 다짐, “시민과 함께 걸어가겠다”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7월 4일 김기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함께 제3대 당진시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당진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배식봉사는 지난해 7월 제3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한 후 1주년을 맞아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1년간의 시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지난해 7월「행복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당진시의회는 2018년 7월 제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6월 제63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0회 116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개최해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힘없이 달려왔다.

또한 2회, 390건의 행정사무감사와 1회, 101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시민들의 피와 땀인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시민을 대신해 감사기관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

특히 제3대 당진시의회는 청각 장애인과 소통을 위한 수화통역방송을 당진시의회 최초로 실시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기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등 의회 자체 SNS를 운영하고 의회 생방송을 송출했으며 월별 시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총 15회에 걸쳐 300여 명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확실한 변화를 통한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시도를 해왔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을 24건 발의 했으며 시민의 권익신장을 위해 기존의 조례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토론하는 의회 자체 연구모임인 조례 연구모임을 통해 28건의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입법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로 인정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 추석맞아 더불어 행복한 이웃사랑 ‘실천’

## 석문·순성면 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온정 나누고 대화 시간 가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9월 9일 민족 고유명절 추석을 맞아 더불어 행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관내 복지시설 두 곳을 위문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이용자와 종사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원들은 제65회 임시회 마지막 날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고 풍성한 추석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노인요양 시설인 석문요양원과 아동복지시설인 에스더그룹홈 등 두 곳의 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이용자들과 온정을 나누고 가족과 추석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에게 가족을 대신해 말벗이 돼주는 등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복지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복지시설의 현재여건과 건의 및 애로사항, 지원방안을 청취하는 등 복지시설의 현장 목소리를 몸소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는 지난 9월 25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당진시민, 공무원 등 중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평생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당진시의회가 직접 주최·주관하여 개최했으며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시민 각각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평생 학습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고 이창식 한서대학교대학원 평생학과 교수가 발제했으며 문영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선임연구원, 황연경 한서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박진희 당진시 평생 학습지원 주무관, 김수정 평생교육 강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는 이창식 교수의 ‘충남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로 시작됐으며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현한 행복학습 센터라는 개념과 이에 대한 운영방법, 추진체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



## 주민자치센터 연계해 운영해야, 좌장 최연숙 시의원, 전문가 배치도 필수

지정토론에서 문영은 선임연구원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시범 운영사업을 통해 평생 학습 체계 중 상대적으로 평생 교육 기능이 약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평생 학습 전담인력 배치 및 기능 보강 사업 추진으로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희 주무관은 “읍·면·동의 평생 학습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와 평생 학습센터가 결합된 센터로서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두 센터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황연경 교수는 “학습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 개발부터 평가까지 모두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열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수정 강사는 “지역별·연령별 적합한 강좌 개설과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접근성이 좋은 교육장소 확보와 교육비 무료 강좌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좌장을 맡은 최연숙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적 유래 없는 빠른 고령화로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평생 학습 문화의 저변이 확대됨으로써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교육 공동체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을 주최·주관한 당진시의회의 김기재 의장은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시민의 욕구도 복잡·다양화 되는 시점의 우리 평생 교육도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당진시의 평생 교육이 활성화 되어 시민 모두가 평생 교육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당진시가 되길 소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 있는 당진시의회는 SNS 채널인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돼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토론회를 청취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다.



# 육성우목장·자연세계 현장 견학



## 낙농축산업 발전방향 논의 현장중시 의정활동 앞장서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명진)가 7월 1일 당진시 송산면 무수리에 위치한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과 송산면 가곡리에 위치한 당진자연세계영농조합의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날 현장 견학에서는 시의회 산업건설 위원들과 당진낙농축협(조합장 이경용)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성우 전문목장 시설을 둘러보고 사업현황을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전국최초의 어린젖소들을 위한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육성우 전문목장 현장견학을 통해 앞으로 당진시의 낙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낙농가와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견학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견학지인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은 송산면 간척농지 일대에 건립해 젖소농가가 입식사육 걱정 없이 착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됐으며 당진낙농축협이 약100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2만 7657㎡, 건축면적 2만 4594㎡, 축사 5개동 규모로 지난 건립해 지난달 14일 준공식을 가졌으며 사육규모는 동당 300두씩 총1500두의 젖소 입식이 가능하다.

또한 당진낙농축협의 자회사인 당진자연세계 영농조합법인도 방문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자연세계가 최근 특허를 취득한 축분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생산기술 등에 대한 사업현황을 보고 받고 세계최초의 해외특허출원 및 생산설비 구축 등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당진시의회,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지난 7월 31일 당진시 신평면 도성리와 신흥1리의 민원해결을 위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최연숙, 양기림, 윤명수 의원과 당진시청 해당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시의원들은 첫 번째 현장방문지인 신평면 도성리 세안주택을 방문해 당진시청 해당 부서장의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후 마을 주민 10여 명과 심도 있는 대화시간을 갖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민원 현장을 면밀히 둘러봤다.

특히 30여 년 된 주택의 노후화된 급수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을주민, 관계공무원과 함께 직접 논의 하는 등 민원 해결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두 번째 현장방문지인 신흥1리의



## 신평면 일원 민생현장방문 실시, 주민소통으로 불편사항 해소 힘써

비위생 매립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과거 생활 쓰레기 매립에 따른 지하수 오염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으며 당진시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재 의장은“물은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돼야한다”며“당진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민원현장에서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당진시 해당 부서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 5분 발언

###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 대책 마련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선집행시설 도로 18개 노선과 공원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실효시킬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실효됨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일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5년간 약 142억원 밖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실효 전까지 미집행 공원 20개소 중 6개소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 조성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도로시설에 비해 공원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관심도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및 공원은 주민생활에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입니다. 실효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조상연 의원 5분 발언

###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하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은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급부터 3급 장애인입니다. 결국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되어 아무리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월 100시간 정도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당진시는 중증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투입은 바로 국가의 책무이고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진시의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2020년에는 2명이고 21년에는 7명입니다. 첫째 필요예산은 8,350만원이고 그 다음해에는 17,39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당진시는 2020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명백히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진시장의 책임입니다. 지원 규정은 이미 있습니다. 이제 당진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 한시적으로 당진시는 활동보조서비스의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최창용 의원 5분 발언

### 당진읍성 복원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촉구



알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당진의 구심점입니다.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미명아래 노후 되었다고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 군청을 철거하고 도심광장 및 거점주차장 조성은 단지 도시재생 선정을 위한 절차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읍성 뒷산은 당진시내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친 도시생활을 편안하게 휴식하고 즐기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읍성의 유래를 배우며 건강과 시가지를 구경하는 문화시민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활기 넘치는 원도심은 간데없고 대책 없는 도시 개발사업으로 초저녁 원도심은 다니는 사람이 없어 죽은 도시로 전락한지 오래입니다. 원도심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들이 넘치고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쪼록 당진시는 우리 시의 역사를 간직한 원도심 구군청 지역을 무분별하고 근시안적인 도시재생사업보다는 당진의 역사문화를 재현하고 보존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옛 정취는 상실했지만 당진읍성을 중심으로 당진시가지가 발달해온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읍성이 있었던 원도심은 당진의 역사를



# 제64회·제65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 의안 : 총24건(조례안14건, 동의안6건, 계획안2건, 규칙안1건, 의견제시1건)
- 처 리 : 원안가결22건, 수정가결1건, 찬성의견1건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처리 구분	의안명	발의자	처리 결과
조례안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명수 의원 외 5명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진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계획안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동의안	당진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동의안	당진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동의안	당진시립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계획안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동의안	당진장학회 장학금 출연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희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의견제시	어촌뉴딜300사업 2020년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당진시장	찬성의견
규칙안	당진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상연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동의안	충남 서북부 미세먼지대응 지방정부연대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전재숙 의원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명수 의원 외 6명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당진시장	수정가결
조례안	당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상연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조례안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장	원안가결



혁신찬란한 변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당진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http://council.dangjin.go.kr) 전화 (041)-350-4811~5, FAX (041)355-1901